

부활 제 5 주일
제 1 독서 : 사도 14,21b-27
제 2 독서 : 묵시 21, 1-5a
복 음 : 요한 13,31-33a,34-35

순정이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요한 13, 34).

강론

소리

“그리스도교의 핵심”

“쓸쓸해진 노년”

박종충 신부 / 고산 천주교회

종교의 역사는 인간의 역사와 함께한다고 합니다. 원시인들의 여러 유적들 안에서 반드시 발견되는 것이 종교의 발자취들이기 때문에 종교학자들이 그런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류의 긴 역사 안에 여러 형태의 종교들을 발견할 수 있음은 물론인 것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 주위에도 예배와 제사와 경전이 서로 다른 종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과거와 현재의 그 많은 종교 가운데 그리스도교가 갖는 특성과 타종교와 확연히 구별되어지는 표징들은 무엇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장엄한 미사 예식도, 교회가 자랑하고 있거나 신자들이 보배스럽게 생각하는 사제나 수도자들의 독신 제도도, 중세기의 종교심을 보여주는 베드로 대성전이나 바티칸 궁전도 예수를 주님으로 믿고 사는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본질이거나 특성일 수 없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세계명을 주겠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요한 13, 34-35). 그리스도교가 그리스도교일 수 있는 유일하고도 확연한 표징은 오늘의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분의 가르침대로 사는 것뿐입니다.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할 뿐 아니라 사랑의 대상에 원수까지를 포함해 모든 사람에게 확대 적용시키도록 예수님은 새롭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특징인 이 사랑은 남을 풍부하게 만드는 것일 뿐 아니라 우리가 사람으로서 존재의 차원을 새롭게 발견케 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리스도인적 내적 본질의 신비를 깊이 파악케 해주어 새하늘, 새땅을 보게 해주는 신비적 힘인 것입니다.

이웃의 고통에 함께하고 그들에게 헌신하는 우리의 사랑에 찬 행위만이 참으로 그리스도교적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동방예의지국의 노인생활도 많이 고달파졌다. 가정 형편에 따라 친차만별이겠으나 50년대까지만 해도 집안 어른으로 자손으로부터 공경을 받고 살던 노년층이 지금은 대체로 소외당한 채 쓸쓸히 지내고 있으니 말이다.

대가족제도가 붕괴되고 핵가족 추세가 두드러지는 시대 풍속이어서 능력이나 소유에 아랑곳 없이 노친에게 효도를 다하던 미풍을 좀처럼 찾아보기 어려운 요즘이다.

한국노인문제연구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노인 혼자나 부부끼리 사는 경우가 절반이 넘고(53.6%), 자녀와 함께 사는 경우는 그에 미치지 못하며(46.4%), 일상생활에 고독감을 느끼는 노인이 절반을 크게 넘는(58.9%)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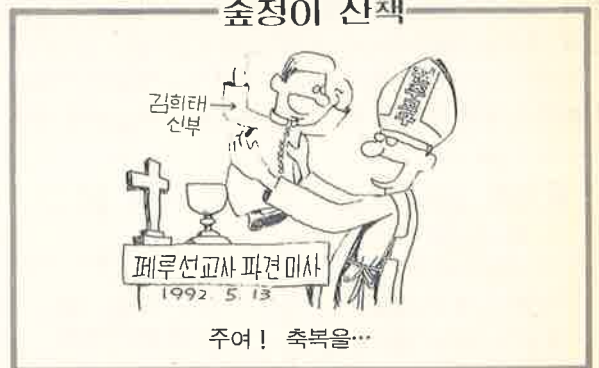
또 자녀들한테 생활비와 용돈을 받아 쓰는 경우가 절반 가량이고, 자녀들과 갈등을 겪고 있는 경우도 이와 비슷하다는 것이다.

이처럼 노인들의 생활 기반이 취약한 상태에서 자녀들의 무관심을 비판해 가솔하거나 심지어 세상을 버리는 사례도 많아 동방예의지국이라는 미명이 부끄러울 지경이다.

예로부터 사람은 누구나 생전 먹고 살만큼 복을 받고 태어난다고 했다. 또 나이가 아무리 많더라도 사람은 사람답게 살 권리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과연 부모를 남부끄럽지 않게 모시고 있는지, 그래서 계명을 잘 지키고 있는지 살펴보자. **☞**

순정이 산책



성서교실 ⑥

“하느님께서 지어내셨다” (창세 1,1-2)

우선 우리는 창세기 1장의 창조 이야기를 현대과학이 증언하는 창조이론과 대립시키거나 조화시키려는 어떠한 시도도 잘못된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을 쓴 저자의 해, 달, 별, 지구에 대한 사고가 당대의 사람들보다 더 과학적이었다고 말할 수 없고, 또 창세기가 기록된 지 2,000년도 넘는 시대와 현대와의 간격이 너무 커서 현대과학으로 성서에 나오는 창조 이야기를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보편적 진리이다. 그러면 창조설화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보편적 진리란 무엇인가? 그것은 우주와 인류의 기원이 바로 하느님께 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이 세상을 인간 중심으로 창조하셨고 인간을 창조의 동업자로 초대하시는 한편, 악의 세력이 기승을 부리고 이 세력에 편승하여 인간이 창조의 길 대신 파괴의 길로 들어서서 방향함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 그의 구원을 위해 애쓴다는 사실이다.

창세기 1장 1절은 마치 할머니가 손자들에게 세상사나 도덕적인 교훈을 이야기에 담아서 설명해주듯 하느님께서도 인류를 교육시키기 위해 이야기를 시작하신다. ‘한 처음에’라는 표현은 ‘옛날 옛적에’와 같이 이야기의 서두를 장식하는 적절한 어구이다. 그리고 이 표현은 창조가 시간에서 벗어난 신화적 사건이 아니라 구체적인 역사의 시작임을 말하고, 바로 이 시작은 다름 아닌 하느님이시라는 것이다. 2절에 언급된 ‘하느님의 기운’은 인간과 모든 생명체를 살아 움직이도록 하는 힘을 말하고 창조를 가능케 하는 것은 하느님의 말씀이다. 3절부터는 하느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새로운 것이 생겨난다. 요한복음서의 저자는 이 사실을 깊이 깨닫고 자신의 복음서 첫머리에 이렇게 적었다. “말씀은 한 처음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하느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은 말씀을 통하여 생겨났고 이 말씀 없이 생겨난 것은 하나도 없다”(요한 1,2-3).

창세기 1장 1절-2절이 전하는 메시지의 핵심은 사람이 탄생하기 훨씬 전부터 하느님은 역사의 주인으로서 세상



만사의 주도권을 쥐고 계시다는 것이다. 즉 우주와 인류의 시작이 그분에게서 비롯되고 그분에게 달려 있음을 가르치고 있다. 또한 여기서 우리는 계획하신 모든 것을 역사 안에서 확고하게 실현시켜나가는 하느님의 의지를 볼 수 있고, 이 계획은 인간 중심으로 세워지고 인간의 구원을 최종 목표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창조에 대한 성서의 이야기를 대할 때 ‘역사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라는 실제적 질문에 대답을 찾으려 하지 말고 ‘세상은 무엇 때문에 생겨났는가? 인간은 어떻게 살 것인가? 역사의 시작과 끝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라는 실존적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해야 할 것이다.

* 참고한 책-하느님과 함께 거닐며

유치원 교사 구함

- 유아교육과 수료자
 - 이리 시내 거주자
- 연락처-홍익미술학원
원장 이 가 우(울리이나)
☎ 855-8692 야간54-1279

한가람 문구

합월을 와리(세광사 건물)
전 상 환(요 셉)
오 애 란(마리아)
☎ 862-3554

자갈 텐트 셋트 분할판매

각종 등산 장비 일절
정시택(아오스딩), 김미향(세실리아)
군산 시청 옆(군산시 영화동 20-3)
☎ (0654) 445-6090
445-6091

효소의 명품

보사허 제 99호, 품목허 제99-1
팔보종합야채효소
건강을 가꾸어드립니다
전북지사 ☎ (0652)74-1161
금암동 로타리 KBS 중간
손석종(안셀모), 김제월(안젤라)

5분 교리 10

“참사람, 참하느님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신 육화의 교리는 그리스도교 신비 중의 하나이다. 우리가 잘 알 수 없었던 하느님께서 자신을 계시해주심에 따라 점차로 깨달아가는 우리의 처지를 생각하고 겸허한 자세로 이 신비의 뜻을 새기도록 하자.

‘예수는 참사람이다.’ 어떤 다른 위대한 인물도 그가 참사람이라는 것을 주장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그는 사람이고 사람 외의 다른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수는 하느님이시면서 인간이다. 우리는 자칫 그분이 하느님이시라는 신성에만 머물기 쉬운데 예수는 바로 나처럼 인간으로서 겪어야 하는 모든 연약함, 기쁨, 슬픔, 고통을 다 겪으셨다.

‘예수는 참하느님이시다.’ “말씀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계셨다”(요한 1, 14). 예수는 인간의 울타리 안에 보이는 하느님이 되셨다. 자칫하면 예수가 목수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라는 우리와 똑같은 평범함 때문에 그분의 참하느님이심이 가려져서 예수는 다만 인간일 뿐이라는 오해가 생길 수도 있는데 ‘예수는 참사람, 참하느님’ 이심을 명백히 해야 한다. 교부 오리게네스는 예수의 신성과 인간성을 이렇게 설명하였다. 셋덩어리를 불속에 넣었을 때 쇠는 바로 불이 된다. 셋덩어리이기도 하고 불덩어리이기도 하듯이 예수 안에 인간성, 신성은 가릴 수 없는 하나의 위격이다. 하느님의 자비로운 계획 때문에 인간의 괴로움을 함께하시려고 마리아 몸에서 인간성을 받으시고 그 인간 본성을 하느님 아들의 위격과 일치시키셨다. 비참한 인간 본성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고귀하게 된 것이다.

* 참고 자료 : 예수 그리스도 · 예수는 누구인가(책)

교 구 소 식

1. 교구장 본당 사목방문 : 5월19일(화) 오전10시-효자동 성당, 오후2시-화산동 성당, 5월22일(금) 오전10시-나운동 성당, 오후2시-옥봉 성당.
 2. 축! 건진 : 5월24일 오전10시 주현동 성당.
 3. 전주교구 성지 봉사자 교육 : 5월18일(월) 오전8시30분 가톨릭센터 출발.
 4. 교리교사 체험수기 공모 : 주제-초·중·고 학생 및 교사들과 관계된 체험수기, 자격-전·현직 초·중·고 교리교사, 마감-5월23일(토), 제출-교육국.
 5. 성가대를 위한 전례 교육 : 5월23일(토) 오전10시-오후4시 가톨릭센터 3층 강당, 대상-각 본당 성가대원 및 전례위원, 강사-송현섭 신부(광주가톨릭대), 회비-7,000원, 준비물 -가톨릭성가책.
 6. 태아생명 보호미사 : 5월18일(월) 오전10시30분 교구청 별관 1층 85-5098.
 7. 혼인강좌 : 5월24일 9시30분-17시 가톨릭센터, 회비-1만원, 문의 85-5098.
* 6·7월은 혼인강좌 없음.
- ※ 축! 영명 : 18일(성예리) 윤애릭 신부님, 23일(성디디에) 지정환 신부님.

- **성소모임** 가리따스수녀회 : 5월24일 오후2시 신동 성당 수녀원 (0653)54-2636.
사랑의 씨튼수녀회(피정) : 5월23일 17시-24일 16시 본원 (062)571-3004.
한국외방선교회 : 5월24일 오후2시 광주 가톨릭센터 606호 (02)923-1946.

자연과 인간의 평화를 위하여

자연을 느끼시다

맨발로 땅을 디더보고 물의 흐름을 느끼며 자연과 자신이 직접 맞닿을 수 있는 기회를 가져봅시다. 하느님이 주신 세상의 일원임을 느끼시다.

은하 피아노 교습소

음대 피아노 전공
이 은 하(루시아)
거성 고숙2차 맨션과
천변주유소 사이
☎ 75-6342

서원 여성 독서실

김 순 숙(실비아)
중화산동 전여상 앞
☎ 224-6248

농협계약판매 · 카드분할판매

서 해 수 족 관

고가구대리점 ☎841-5440,
동부시장노동청 위 ☎842-1100
이규홍(안토니오)
채숙녀(세실리아)

요심이 (980) 김병오



관리 사무직 직원 모집

- 1.모집 부문 : 기획관리,인사관리 ○ 영
- 2.응시 자격 : ①병역필 또는 면제자
②4년제 정규대학 학사학위 취득자
③영세한 지 5년 이상이 된 자
④연령 제한 없음
- 3.제출 서류 : ①지원서(소정양식)
②대학 전학년 성적증명서
③세세 증명서 각 1통
- 4.지원서 교부 및 접수
①교부 및 접수기간 :
5월18일(월)~5월25일(월)
오전 9시-오후5시(토,12시까지)
②교부 및 접수처 : 전주교구 사무처
(☎ 85-0041)

5.채용 방법

- 1차 : 서류 전형
- 2차 : 면접 및 신체검사
(1차 합격자에 한함)

6.기 타

- ①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②합격자는 개별 통지함

전주교 전주교구 사무처

소피아 피아노 학원

수시 학원생 모집
음악이론지도,원장 직접 개인지도
동산동 우신APT 옆
☎ 212-3180
조 해 경 (소피아)

□ 남전주지구 본당소식 □

*** 노송동** 본당신부 82-9663 사제관 82-9663 주임신부 박 진 랑
수녀원 82-9662 사무실 82-9661 사목회장 김 동 주

1. 경로잔치: 오늘 공식미사 후 (사제관 앞마당)
2. 대건회: 공식미사 후 3. 장우회소식: 월례회비 폐지
4. 여성 연합회: 19일(화) 어머니미사 후
5. 성모의밤: 23일(토) 복건미사 후 운동장
6. 레지오 마리에 야외행사: 24일(다음주일) 12시 치명자산(군정 묘지쪽으로 입산)
7. 구역·반회장 강질: 중노송동2구역 회장-최영숙 대례사(양정숙 베로니카), 중노송동8반 회장-문선자 안셀라(양정숙 베로니카), 중노송동18반 회장-채 용 유리안나(진진순 해나)
8. 금주청소: 중노17,18반 치주청소: 19,20반
- 지난주 봉헌금: 828,210원 □ 교무금: 850,000원
- 2차헌금: 372,090원

*** 복자** 사제관 86-3453 사무실 86-3455 주임신부 김 병 환
수녀원 86-3454 사목회장 이 상 인

1. 레지오 마리에 야외행사: 19일(화) 오전9시30출발. 장소-판촌 사선대. 준비물-미사도구, 목주, 멧세라, 도시락
2. 견진성사 신청서 접수마감: 24일까지.
3. 첫 영성체 교리: 매주 토요일 오후3시
4. 성모의밤 행사: 28일 유인물 참조바랍니다.
5. 회합: ①성우회(공식미사 후) ②부녀회(21일 오전10시)
③반찬시오회(23일 오전10시)
- 금주전례: 유복규 독서-김현덕씨 부부
봉헌-박상기씨 부부
치주전례: 최옥남 독서-나경섭씨 부부
봉헌-채용석씨 부부
- 지난주 봉헌금: 580,140원 □ 교무금: 763,600원

*** 상관** 사제관 82-5079 주임신부 이 수 현
사무실 82-5434 사목회장 한 동 육

- ※ 오늘은 부활제5주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1. 성기정, 청년회: 공식미사 후. 성모의 밤: 23일(토) 저녁8:00 헌시, 헌화봉헌 3. 승천대축일 야외미사: 31일. 어두리 저수지 옆 야산. 4. 교리교사를 위한 2차헌금: 다음주 5. 성서강의: 매주 목 저녁미사 후 6. 성서읽기: 민수 21장~36장 7. 청소년사: 천주의모친Pr. 8. 금주전례: 해설-유만순 독서①김봉철 ②주영래 봉헌-김한철, 이수복씨 부부 치주전례: 해설-김영신 독서①정광섭 ②송정자 봉헌-양계철, 김대권 부부
 - 지난주 봉헌금: 279,940원 □ 교무금 268,000원

*** 서학동** 사제관 84-8307 사무실 86-4929 주임신부 서 석 기
수녀원 84-2276 사목회장 김 명 웅

- ※ 부활제5주일! (5월은 성모성월)
1. 회의: ①성심회-5월17일(오늘) 공식미사 후 ②꾸리아-5월17일(오늘) 오후2시
 2. 모임: ①전례부-5월21일(목) 오후8시
 3. 알림: 봉성체-5월20일(수) ②어린이체육대회-5월24일(일) 오전9시부터 오후5시까지 성심여자중고 운동장(남전주지구 각 본당주일학교 어린이) ③성모의 밤행사: 5월30일(토) 저녁미사 후(전신자 참여바랍니다) ④견진성사-6월14일(일) 오전10시.
 - ※ 견진성사 받으실 분은 사무실에 신청서가 있으니 5월30일 까지 신청바람(기일업수)
 - 지난주 봉헌금: 712,350원 □ 교무금: 472,000원

*** 용머리** 사제관 88-3872 사무실 87-0441 주임신부 조 정 오
수녀원 81-0441 사목회장 오 직 환

1. 오늘: 주일학교 소풍 장소-동물원
2. 예비자 인도에 적극 참여합시다.
3. 성가로 주님을 찬미합시다: 성가대 단원모집
4. 평일 미사 30분전 묵주기도: 성전전립 기금 바자회 준비와 신자들의 일치를 위해서.
5. 율브레아: 오늘 저녁미사 후
6. 청소년사: 2구역 1반 2반
- 지난주 봉헌금: 638,000원 □ 교무금: 823,000원

*** 전동** 사제관 본당 81-0098 보좌 82-7245 주임신부 김 봉 회
사무실 84-3222 수녀원 82-9234 보좌신부 정 삼 권
유치원 84-8347 FAX 82-6232 사목회장이 영 태

- ※ 오월은 성모성월: 각Pr별 저녁미사 후 기도.
1. 금주: ①마리의 성모Cu(후2시) ②교무금 납부주일(월납제) ③청년연합회 대청소(후4시) 월례회(저녁미사 후)-청년회원, 단 제장, 많은 참석바람.
 2. 레지오 단원교육: 18일(월) 저녁7시-전단원 참석요망(레지아 주관)
 3. 성화회: 18일(월) 저녁6시 4. 성모회: 20일(수) 오전11시
 5. 치주: ①부활영세자 찾고백(메미사중예) ②남전주지구 초등부 체육대회(성심학원 운동장) ③성마리아 Co(후2시) ④차량축성식(공식미사 후)
 - 지난주 봉헌금: 1,655,990원 □ 교무금: 1,198,500원

*** 평화동** 사제관 85-6979 사무실 83-8245 주임신부 이재 후
수녀원 87-0229 사목회장이 완 규

- ※ 성모의밤 행사: 18일 후8시, 모두 성모님께 예를 준비
1. 어린이 첫영성체 접수: 오늘까지, 국교3학년~6학년까지
 2. 환자 봉성체: 21일 진9시30분. 환자를 모신 가정은 접수
 3. 남전주지구 어린이 체육대회: 24일 성심학교 운동장
 4. 반찬시오: 23일 전10시30분. 활동적인 회원가입 환영합니다.
 5. 세집 축성미사: 19일 전11시 광곡 윤계덕 형제
 6. 교무금 납부주일: 다음주일, 신자의 의무를 다함시다.
 7. 경품권 대금 납부: 25일까지, 경품을 찾아가시기 바람.
 8. 회의: 성모회-어머니미사 후, 율브레아-24일 공식미사 후
 9. 전임신자 소개의날: 24일 공식미사에 모두 함께.
 - 성소주일 2차헌금: 250,840원 ? 신축헌금: 익명 삼백만원
 - 지난주 봉헌금: 827,570원 □ 교무금: 598,000원

*** 화산동** 사제관 221-9843 주임신부 서 석 구
사무실 221-9842 사목회장 한 병 각

1. 자모회: 오늘 미사 후 2. 저녁미사 시간변경: 오후8시로.
3. 사목방문: 19일(화) 오후2시-사목임원 및 단제장님들의 참석 바람.
4. 반오일 19일(화) 오전-성원 오후-운남 저녁-심정1,3 20일(수) 오전-화산1 오후-신일
5. 교리교사 정기총회: 22일(금) 오후7시
6. 청년회: 다음 주일 미사 후
7. 성모의 밤: 30일(토) 오후8시
8. 여성부장: 박순옥(소피아) 수고해 주십시오.
9. 금주전례: 최경순 독서·봉헌-김영주, 이정기
치주전례: 정 걸 독서·봉헌: 안귀래, 조규명

*** 효자동** 본당 223-3824 사무실 223-3821 주임신부 김 치 삼
보좌 223-3823 수녀원 223-3822 보좌신부 서 석 회
사목회장이 동 섭

- ※ 오늘은 부활 제5주일
1. 모임안내
①자모회-20일(수) 10시30분
②포미시움-23일(토) 후3시
③환자봉성체-다음주 목, 금
 2. 행사안내
①성모의 밤행사: 28일(목) 후7시30분 : 중교생성모의밤 30일(토)
②첫 영성체교리: 5월20일부터 매주 화, 수, 목, 금 (첫 영성체날-6월13일(토) 오후3시)
 - 지난주 봉헌금: 1,126,740원 □ 교무금: 1,573,000원

*** 효자우전** 사제관 221-3712 사무실 221-3711 주임신부 김 순 태
수녀원 223-0715 사목회장 법 익 도

1. 새벽회: 오후6시 2. 반기도회모임: 22(금)10시미사 후 3. 예 비자교리: 수요일 오전10시(수녀님) 밤8시(신부님) 주일 오전9시(수녀님) 4. 성심회단합대회: 19(화) 금산사 10시까지 정당집결
5. 성전신축위원 피정: 6월13일(토)~14(일) 천호성지 6. 반회 장 및 제단제장 피정: 7월4일(토)~5(일) 나바위
- 차주모임-반석회
금주전례해설-김강년 독서①송제만 ②라화성
미사안내봉헌-송하영부부, 전형섭부부
치주전례해설-강진상 독서①김용만 ②이병희
미사안내봉헌-이준영부부, 소철영부부
- 지난주 봉헌금: 1,043,220원 □ 교무금: 912,000원